

종합·해설

“국감 9월에 하자” “10월에 해야”

정기국회 개회... 여야 ‘쟁점법안’ 기사웁

4대강·개헌론·세제개편안 등 격돌 예고

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된 가운데 여야 간의 쟁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사웁을 펼치고 있는 여야는 앞으로 100일간 개헌,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4대강 사업 예산을 비롯한 새해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 일정=일단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기국회 일정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을,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각각 고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여권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10월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9월 국감’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및 예산 결산 일정에 비해 9월 국정감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0월 추석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보선 직전에 국감을 실시, 정부 실정을 파헤침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정치개혁 논의=한나라당은 ‘속

도전’에 나설 태세인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내 개헌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은 당내 관련 특위를 통해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선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들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추후 제시할 대안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논의에 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이다. 특히 개헌이 여권의 국면 전환을 카드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논의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예산 전쟁=한나라당은 경제회복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4~5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찬회를 갖

는 것은 물론 정부 예산안 제출시기인 내달 2일전까지 수차례 당정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해 교육과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 개편안을 놓고도 격돌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감세 기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 및 소득세의 추가감면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부안이 부자 감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신종플루 백신 생산현장 방문

민주당 지도부가 1일 녹십자 화순공장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신종플루 백신 생산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신종플루 현장점검에는 정세균 대표, 김진표·장상 최고위원, 최인기, 주승용, 양승조, 백원우의원이 동행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내년 6월 교육의원 첫 직선

정당추천 배제 소선거구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선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바꾸도록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때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 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

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며 기호는 ‘1, 2, 3’이 아닌 ‘가, 나, 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연협스

김영삼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입원 가료 중이라고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1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토요일(8월 30일) 김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피로를 호소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협스

靑, ‘호남총리’ 어찌할꼬

강현욱·김종인·진념 등 검토 불구 호남 상징성 이견

박준영 카드 논란이어 민주 종진의원에도 거절 당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각이 초임기에 들어간 가운데 ‘호남 총리’ 발탁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막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호남 총리 발탁을 위해 모든 인재 풀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론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주말 자유선진당 공동대표인 심대평 총리 카드가 무산되면서 호남 총리 발탁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인재 풀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강현욱 전 전북지사,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 전운철 전 감사원장, 진념 전 부총리 등을 호남 총리 카드로 검토했으나 고령인 데다 호남 상징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인재 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호남을 상징할 수 있고 정부 및 행정적 능력이 검증된 인사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후보를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청와대는 민주당 당적의 박준영 전남지사를 총리 후보 스크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으며 민주당 모 종진 의원에게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모 종진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지난 주말 총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으나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총리직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이 총리로 간다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한, 호남 총리가 임명된다고 해도 여권의 권력 구도를 감안한다면 별다른 활동 공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부 정치권 인사에게도 호남 총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각각이 막판에 몰림에 따라 청와대가 기존의 호남 총리 후보군을 다시 검토하거나 총청 총리 카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을 떠나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인사나 여성이 총리로 깜짝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호남과 통합을 상징하고 정부 및 행정적 능력을 가진 총리급 인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막판에 몰린 청와대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기정 “내년 서울·광주시장 공천 선거 판세 영향 미칠 것”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일 광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공천이 내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광주시장은 호남을 대표한다”며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공천이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사의 리더십이 아닌 소통의 리더십, 작은 것을 행하면서 총론을 놓치지 않는 치밀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박원 “10월2일 ‘효의 날’ 지정하자”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이 1일 광주시의회 제182회 제1차분회의에서 10월2일(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강 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경로사상 고취·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년 10월2일을 ‘효의 날’로 정하고 효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양혜령 “도청별관 제3대안 모색을”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계립·산수·충장·동명

전남도의회 쌀 대북지원 재개 결의

○전남도의회(의장 박인환)는 1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분회의에서 ‘쌀 대북지원 재개 등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내 쌀 시장 수급 안정과 북한 동포의 식량공급에 기여해 왔던 대북 쌀 지원 재개와 함께 적극적인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 쌀 관세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해남 2)이 대표 발의해 이뤄졌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낼 계획 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재)해천재광영광군 향우장학회 장학생선발 공고문

(재)해천재광영광군 향우장학재단에서는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성실하고 애학심이 강한 학생으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지원자격
-광주시 관내 거주 영광군 향우회원가족으로 초,중,고,대학생
○선발예정인원 : 00명

II.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기타서류 : 통장사본(본인명의로)

○주민등록등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III. 선발일정

○서류접수 : 2009년 8월 31일(월) ~ 9월 7일(월)
○면접심사 : 2009년 9월 8일부터
○최종선정 : 2009년 9월 12일(월) 발표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09년 9월 25일(금) (※ 최종 선정 장학생 개별통지)

IV.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접수(9월 7일까지)
○신청 및 문의처 : 광주 남구 구동 21-1번지 2층, 사무처장 김 대 외
T. 062-673-0419, 010-4192-5182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yug42@naver.com

V.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기재정중립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 교육목표 :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 교육기간 : 2009년 9월 7일 ~ 12월 18일(15주)
※ 교육요령 : 실습위주교육 (실습70%, 이론30%)
- 교육과정 :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남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원서교부및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09년 7월 13일(월) ~ 9월 7일(월)
- 등록시간 : 월~금 (오전 10시~ 오후5시)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각 (호성관4층)
- 등록방법(수강료:200,000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광우대 평생교육원)
- 수료 후 특전 : 수료증수여(총정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피진, 각 기업체,학원단체스피치,발표력 강사및 사회진행자 추천
- 담당교수 : 한 승 태
- 한국응변연설인협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서위원장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상 전국응변연설대회 대외본부장
- 각종 스피치기능성시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공익의원,광역7 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연설회 및 연설문 작성(30년)
- 사단법인 한국응변연설회 광주문부 회장
※ 저서 : 말하기 교본, 스피치 응변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 IPALG 종합특수방수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896503호)

IPALG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공법

- 방수 뿐 아니라 뛰어난 단열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 보형성이 탁월하고 옥상바닥소음을 없애줍니다.
- 이중방수효과로 견고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합니다.
- 시공 바닥면의 진행형 크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열에 강해서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 계절과 상관없는 전천후 시공이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신축건물에도 적합한 최고의 방수공법입니다.
- 선진국형 친환경 방수공법입니다.

방수층 단면도

무용제 우레탄 “코그싱테” 도포

트라이슈머 시트

트라이슈머 베이스 카펫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이파엘지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 - 타일스

이파엘지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 - 콘크리트

무용제 우레탄 “코그싱테” 도포

트라이슈머 시트

트라이슈머 베이스 카펫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트라이슈머 시트

Trysumer sheet

본사 전국모임 센터 이 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점 (061)284-0485 순천지점 (061)726-0482

광주전남지사 (062)511-0444 여수지점 (061)683-0485 광양지점 (061)795-0485